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6월 뉴스레터 목차

1. 소프트 학생들은 방학 때 뭘 할까?

- 1) 산학협력 프로젝트 - 소이넷, 정현일
- 2) 스타트업 근무 - 라이프마켓, 신민규
- 3) 여러 프로그램 참여 - LG Aimers, 변지환

2. 글용 학생들의 방학 계획 파헤치기

- #몰입캠프 #한달코딩 #스타트업
- #자격증_섭렵 #컬텍만의_자격증

3. 창업을 꿈꾸는 소프트 학생들 모두 주목!

- Q1.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을 위해 준비한 것과 이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 Q2. 창업팀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코디미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Q3. 코디미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Q4. 창업을 꿈꾸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4. 글로벌융합학부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 주목!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소프트 학생들은 방학 때 뭘 할까?

폭풍 같았던 1학기가 끝나고, 벌써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다들 각자만의 계획을 세우고 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텐데요. 다른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과연 방학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한창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신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알찬 방학 보내시길 바라요☺

1) 산학협력 프로젝트 - 소이넷, 정현일



Q1. 산학협력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1. 아무런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방학 때 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중 가장 접근성이 쉽기 때문입니다.

Q2. 장단점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2. 소이넷의 경우 견습 인턴의 신분으로 일하는데, **실무에서 요구되는 근무 능력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론/실습이 어떻게 다른지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기업 멘토분들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신 뒤 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일과가 매일 반복되니 **빠른 시간 동안 밀도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개인 시간이 부족해** 방학 때 계획한 일정들을 거의 주말에 해야 합니다. 또 하루 9시간 근무 +2시간 30분 출퇴근으로 인해 다른 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 **학기 중보다 더 빈곤**해집니다. 물론 산학협력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배우며 얻어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비도 해결해주지 못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2) 스타트업 근무 - 라이프마켓, 신민규



Q1. 스타트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1. 재직 중인 선배님께 제의 받고 고민 끝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시작했습니다.

Q2. 장단점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2. 장점은 **하고 싶은 걸 맘껏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백지 상태의 프로그램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해보지 않은 일거기에 참고할 자료나 코드가 부족하여 이 부분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인 만큼 저의 노력이 무조건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Q3.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조언은?
 A3. 제가 창업을 한 것도 아닐 뿐더러 개발 리더도 아니기에 조언을 해드릴 입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굳이 조언을 하자면 **스타트업에 꿈꾸는 분의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이 불투명한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충분한지 꼭 한 번 고민해보세요!

3) 여러 프로그램 참여 - LG Aimers, 변지환



Q1. LG Aimers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1. 인공지능 추론 가속 플랫폼에 관심 있어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은데,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적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 해커톤을 참여하며 기어브에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고 싶었습니다.

Q2. 장단점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2.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LG인공지능 전용 학습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게 들을 수 있고, LG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AI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때 LG AI 해커톤은 LG 계열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실제 data를 활용하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가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해커톤을 참여할 때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짧다보니 답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Q3. 이 프로그램을 꿈꾸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은?
 A3. 생각보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글융 학생들의 방학 계획 파헤치기

글로벌융합학부 학생들의 갓생 살기 프로젝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힘들었던 기말고사를 끝낸 여러분, 방학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몇몇 학우들은 친구들끼리 놀이공원이나 축제를 다녀오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불가능했던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맘껏 즐기긴 해도 부족할 방학이지만, 이번에 갓생을 보내거나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학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갓생' 사는 학우님들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방학 계획 세우시는 데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몰입캠프 #한달코딩 #스타트업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20 우다연

Q1. 몰입캠프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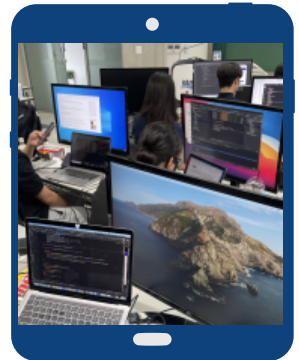
선배에게 몰입캠프 후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한 달 동안 코딩에 온전히 몰두하면서 실력도 쌓고, 인적 네트워크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이 활동의 장단점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인연과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예요. 개발을 목표로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정보를 얻고 진로에 대한 시야도 넓어졌어요. 또 온종일 무언가에 몰입하는 게 힘들지만, 신기하게도 이것이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다른 일을 병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주어진 시간 내 작업을 마치려면 이 외의 일정은 모두 포기하고 개발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또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카이스트 내 기숙사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3. 코딩 캠프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낮선 장소에서 낯선 학생들과 섞여 한 달 동안 코딩해야 한다는 게 부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름방학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면, 몰입캠프에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몰입캠프의 의의는 완성된 실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개발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이므로 열정만 있다면 모두 잘 해낼 수 있어요!



#자격증_섭렵 #컬텍만의_자격증 컬처애텍놀로지융합전공 20 서보림

Q1. 이번 학기에 자격증을 섭렵하려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3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 복학하려 하는데요. 자격증을 여유롭게 취득할 시간이 지금뿐이라고 생각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2학기부터 경영학 복수전공을 시작하는데, 이것저것 배워놓으면 더 수월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Q2. 어떤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주전공인 컬텍과 부전공 경영학이 시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컴퓨터활용능력(이하 컴활)'과 '서비스경영디자인 기사(이하 서경)'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활은 자격증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엑셀과 데이터를 원활하게 다루고 싶어서 먼저 취득하려 합니다. 서경은 UX와 UI를 다루는 신규 자격증인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따려고 합니다. 서경은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지 않는데 컬텍은 다행히 포함이 돼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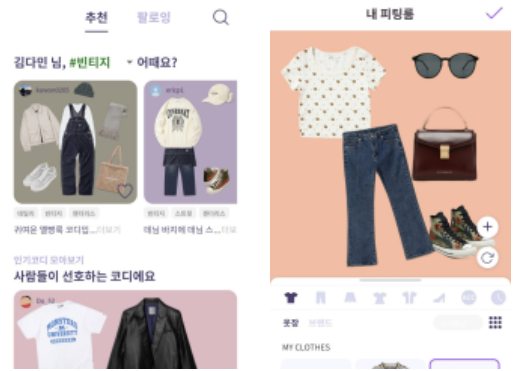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창업을 꿈꾸는 소프트 학생들 모두 주목!

여러분, 창업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요? 우리 학교에 최근 프랑스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을 다녀온 창업 팀이 있습니다. 바로 코디미(CodiMe)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어떤 팀인지 가늠이 되지 않나요? 코디미는 옷을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을지 시각화 해주는 패션 스타일링 플랫폼입니다.

저도 코디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코디를 구경할 수 있고, 피팅룸에서 제 옷장에 있는 옷과 원하는 상품을 직접 코디할 수 있었습니다. 코디미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집에 있는 옷과 코디를 할 수 있게 해주어 우리가 쇼핑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친구와 코디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코디미가 어떤 팀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디미는 앞서 말한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코디미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코디미의 대표이신 정지혜 학우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Q1.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을 위해 준비한 것과 이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랑스 세일즈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저희 서비스를 영업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영어로 각자 저희 서비스를 엘리베이터 피칭으로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또한, IR 자료의 구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여러 번 IR 자료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르노블 비즈니스 탐방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창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뜻 깊었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매일 사무실에서 일하던 일상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2. 창업팀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코디미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창업이 꿈이었는데, 사실 임버러처럼 졸업 전에 창업해보는 게 꿈이다 말하고 다녔는데, 현실이 될 줄 몰랐네요. 저희 팀은 저희 학교에서 시작되어, 당연하게도 개발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팀입니다. 여느 스타트업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자인 개발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Q3. 코디미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패션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가 옷을 구매할 때 어떻게 입을지 코디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겪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가 정착된 후, 오프라인으로도 채널을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학우분들, 오프라인에서 쇼핑할 때 옷은 예쁜데, 정작 내가 어떻게 코디해서 입어야 할지 고려하기 힘들거나 귀찮아서 구매를 포기한 적 한 번씩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희는 온/오프라인이든, 소비자가 옷을 구매할 때 본인의 옷장을 고려하는 모든 고민에 함께하는 서비스가 되고 싶습니다.

Q4. 창업을 꿈꾸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 모든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인재 채용난, 그 중에서도 개발자 채용난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골인하느냐 마느냐가 팀 내에 개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 동기, 선우배들도 개발자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 친구들이랑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창업 팀에 있어 얼마나 큰 강점인지 모릅니다. 시장 검증 위한 MVP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고, 개발자가 팀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원 사업 심사, 투자 유치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더구나 저희는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획, 디자인, 마케팅 팀원 또한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은 잘하는 것보다 맨 땅에 헤딩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창업하기 정말 좋은 학교인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게 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와 학교에서도 창업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글로벌융합학부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홍보대사 알리미에서 학부 입학에 원하는 고등학생들과 향후 글융으로 전공 진입을 희망하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얻어갈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융합학부는 2019년 타 계열 및 학과로부터의 첫 전공진입을, 2021년부터 첫 신입생 입학에 시작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4기에 이르게 된 글로벌융합학부 알리미에서는 학부와 세 전공을 소개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예비 성균관인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작년(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부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 설명회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오프라인 설명회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개요

- (1) 일시
 - 온라인 설명회 : 2022.07.14(목) 19:00 ~ 22:00
 - 오프라인 설명회 : 2022.07.21(목) 18:00 ~ 21:00
- (2) 장소
 - 온라인 설명회 : Zoom
 - 오프라인 설명회 :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영관 지하 1층 33B101
- (3) 참여 인원
 - 온/오프라인 설명회 : 선착순 100명
- (4) 신청 기간
 - 온라인 설명회 : ~ 2022.07.08(금) 23:59
 - 오프라인 설명회 : ~ 2022.07.15(금) 23:59
- (5) 설명회 신청 방법
 - 온/오프라인 설명회 : <https://forms.gle/CznJFr4ZUEH7bzdP9>
 - *참여가 확정되면 상세 내용과 함께 안내 문자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 목차

- (1) 성균관대학교 소개
- (2)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소개
- (3) 글로벌융합학부 세부 전공 소개
 - 데이터사이언스 / 인공지능 / 컬처애펀테크놀로지
- (4) 글로벌융합학부 진입 방법
 - 신입학 50명 / 전공 진입 60명
- (5) 학교 생활 & 학부 생활
 - 학생회 / 홍보대사 / 기자단 / 학회 / 동아리 / 학부 내 비교과 프로그램
- (6) 전공 별 졸업 후 진로 소개
 - 데이터사이언스 / 인공지능 / 컬처애펀테크놀로지
- (7) 글로벌융합학부 입시 정보 제공
 - 글로벌융합학부 신입학 입시 정보 / 글로벌융합학부 전공 진입 정보
- (8) 질의응답 Q&A
 - 사전 질문 Q&A / 현장 질문 Q&A